

## 민담 소재 활쏘기 이야기 연구

- '명궁행세'를 중심으로 -

정 훈 식\*

###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서사적 특징과 의미                       |
| 2. 이야기를 이루는 주요 모티프 | 1) 명궁행세, 욕망실현을 위한 트릭과 '신성한 활쏘기'의 붕괴 |
| 1) 雀屏中選            | 2) 便射, 활쏘기 놀이의 서사화                  |
| 2) 大賊退治            | 4. 마무리                              |
| 3) 引而不發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 민담에 전승되는 활쏘기 이야기를 대상으로 모티프와 서사적 특징을 고찰한 글이다. 활쏘기를 모티프로 삼은 구비서사는 매우 풍부하며, 이에 관한 연구 성과도 풍부하다. 다만 신화 전설에 나타난 활쏘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민담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다는 점에서 연구 상의 편향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담에 전승되는 활쏘기 이야기는 두 가지 점에서 신화, 전설과 차이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육전담교수

가 있다. 우선 민담의 주인공은 영웅이 없다. 다만 한미한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들 주인공은 활을 전혀 쏘지 못하지만 명궁행세를 하여 처를 얻거나 부를 누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점이 신화, 전설과 비교하여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활쏘기 민담 가운데 명궁행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티프와 서사적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우선 이야기를 이루는 주요 모티프를 살펴보았다. 우선 활 잘 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며 널리 공모한다는 모티프는 『구당서』에 전해오는 기록인 ‘雀屏中選’과 유사하다. 활 잘 쏘는 사람은 주로 집 뒤의 부영이, 독수리나 도성에 나타난 호랑이를 잡아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는 ‘大賊退治’담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활을 당겨놓고 쏘지 않는 모티프는 맹자에 보이는 ‘引而不發’을 민중적 서사로 변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모티프는 모두 신화전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민담에서만 보인다.

이러한 모티프로 엮인 이야기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활쏘기 이야기는 제대로 된 활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지방의 빈천한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명궁 행세를 통해 결핍을 해소하고 욕망을 실현하는 이야기로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트릭을 구사하며 명궁의 지위를 누리고, 위기에 이르렀을 때는 기지를 발휘하며 최종적으로 욕망을 실현한다. 이 과정에서 활쏘기의 신성함은 붕괴된다. 또한 활쏘기에는 편사라는 전통적 활쏘기 놀이를 민담의 세계로 끌어들었다. 편사는 편을 나누어 활쏘기 실력을 겨루는 놀이로 조선후기에 성행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져오는 놀이다. 이 놀이를 서사에 적극 반영하여 흥미를 배가했다. 이 두 가지는 민담에서의 활쏘기 이야기가 신화 전설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과 의미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민담, 활쏘기, 雀屏中選, 大賊退治, 引而不發, 명궁행세, 트릭, 편사.

## 1. 들머리

이 글은 전승되는 민담에 나타난 활쏘기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 활쏘기 이야기는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듯, 우리나라에도 풍부하게 전해온다. 그런데 신화나 전설 속의 활쏘기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민담에 전승되는 활쏘기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sup>1)</sup> 민담에 전승되는 활쏘기 이야기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소략하지도 않으며, 그 내용도 신화, 전설에 나타난 이야기와 다를 바 없거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관심 밖의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활쏘기 민담을 학계의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

활쏘기 이야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전해오는데, 크게 (1)명궁행세를 통해 욕망을 성취하는 이야기, (2)남을 도와주고 복을 얻는 한량 이야기로 나뉘며, 그 외 (3)진달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한량 이야기, (4)기타 유형이 소략하게 전승된다. 그런데 활쏘기라는 모티프가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유형은 (1)이 두드러진다. (2)와 (3)은 한량이라는 인물 성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활쏘기는 크게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활쏘기가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sup>2)</sup>

1) 설화 전체에 나타난 활쏘기를 다루면서 민담 활쏘기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다룬 적은 있다. (정재민,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국궁-설화에 나타난 활쏘기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학예지』 제7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0.) 그러나 민담 중심으로 자세하게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2) 물론 유형 (2), (3)은 추후 별도의 장을 마련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 2. 이야기를 이루는 주요 모티프

우선 명궁행세 이야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티프가 활용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티프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雀屏中選, 大賊退治, 引而不發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대부분 이 세 모티프가 이야기에서 주요하게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논의에 필요한 자료와 이 자료들에서 모티프 수용양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모티프 수용양상>

	제목	雀屏中選	大賊退治	引而不發
1	거짓 활 잘 쏘는 사람 <sup>3)</sup>	×	○	×
2	거짓 활 잘 쏘는 사람	×	○	×
3	거짓 활 잘 쏘는 사람	×	○	○
4	거짓 활 잘 쏘는 사람	×	○	×
5	부영이 잡은 한량 <sup>4)</sup>	○	○	○
6	엉터리 명궁 <sup>5)</sup>	×	×	○
7	새잡이 총각의 명궁 행세 <sup>6)</sup>	×	×	○
8	엉터리 명궁 사위 <sup>7)</sup>	○	×	○
9	속임수 활숨씨로 출세한 사람 <sup>8)</sup>	○	○	○
10	활량 사위들의 활쏘기 시험 <sup>9)</sup>	×	×	○
11	산 새 99마리 잡아 사위된 엿장사 <sup>10)</sup>	○	×	○
12	활을 잘 쏘 대감의 사위가 된 사냥꾼 <sup>11)</sup>	○	○	○
13	화전말 매다 명궁이 된 사람 <sup>12)</sup>	×	○	×
14	매 잡는 이야기 <sup>13)</sup>	○	○	○
15	우연한 명궁 <sup>14)</sup>	×	○	○

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1, 평민사, 1989, 104~110쪽. 여기에는 표에서의 1-4번과 같이 동일한 제목의 이야기가 4편 수록되어 있다. 이하 『구전』이라 약칭한다.

4) 『한국구비문학대계』1-2, 정신문화연구원, 1988, 136-139쪽. 이하 이 책은 『대계』라 약칭한다.

5) 『대계』1-4, 925~927쪽.

6) 『대계』2-6, 361~379쪽.

7) 『대계』3-2, 786~791쪽.

자료는 일단 채록시기 순으로 나열하였다. 작품 수는 『구비문학대계』에서 많이 살필 수 있지만 시기로 보면 임석재 채록본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다. 그 외 설화자료집에 소략하게 전해온다. 표에서 살필 수 있듯 초기 자료에는 ‘대적퇴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초기에 이 유형의 이야기가 「지하국대적퇴치담」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작병중선’과 ‘인이불발’ 모티프가 더해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특히 ‘인이불발’ 모티프가 후대 자료에 대거 수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티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민담으로 수용되었는지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초보적으로 추론해보고자 한다.

#### 1) 雀屏中選

옛날에 경상도에서 아마 송년(흉년)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지유. 그래서 한 사람이 송년도 만나고 맨날 거기서 지방(紙榜)을 쓸라든 벼슬을 못한 집이기 때문에, 현고학생부군(顯考學生府君)입니다. 그래서 내가 워터해야 벼슬을 할까? 글을 배웠어야 하는데 글을 하나도 못 배웠구에- 서울 올라가서 강통을 차더래두 서울루 올라간디구 게 서울루 올라가는 길에 워디-쫘 가다 보니까 한 군데 무얼 이렇게 [두 손으로 네모를 그리면서] 붙여 놨는데 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게, 중이 하나 지나다가,

8) 『대계』4-5, 558~565쪽.

9) 『대계』7-13, 787~791쪽.

10) 조희웅, 노영근, 박인희, 『영남 구전자료집』 3(경남 함양군), 박이정, 2003, 63~65쪽. 이하 『영남』이라 약칭한다.

11) 조희웅, 노영근, 박인희, 『영남 구전자료집』 8(경남 의령군), 박이정, 2003, 189~190쪽.

12) 이기형, 『이야기꾼 이종부의 이야기 세계』, 보고사, 2007, 43~62쪽. 이하 『이종부』라 약칭한다.

13) 신동훈 외, 『도시전승설화자료집성』 10(울산 동헌공원), 민속원, 2009, 237~238쪽. 이하 『도시』라 약칭한다.

14) 조희웅, 조홍욱, 박인희, 『호남 구전자료집』 3(전남 고흥군), 박이정, 2010, 46~47쪽. 이하 『호남』이라 약칭한다.

“아 이 집은 딸을 얼마나 잘 뒀길래 활 쏘는 사람이문 사위를 삼는다  
구 씨 붙여 뒀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구서,

“에이, 나두 활 좀 잘 쏘 가지구서 저 집 사위 노릇을 좀 해 봐야겠  
다.”<sup>15)</sup>

이 이야기는 활쏘기를 잘하는 자를 사위로 삼는다는 방을 붙여 여기에 응모하여 방을 붙인 집에서 인정받아 그 집의 사위가 된다는 내용이다.<sup>16)</sup> 이 이야기는 당 태종 이세민의 부친 이현과 관련된 고사인 이른바 ‘雀屏中選’과 나란히 놓고 살펴볼만하다. 『구당서』에 전하는 이 고사는 다음과 같다.

당 고조 태목황후 두씨는 경조 시평인으로, 수나라 정주총관인 신무공의 딸이다. 황후의 모친은 주 무제의 여동생인 양양장공주다. 태목황후는 태어날 때 머리카락이 이미 목덜미까지 자라 있었고, 3세가 되었을 때 몸길이가 같았다. 주무제가 황후를 특별히 애지중지하여, 궁에서 길렀다. 무제가 돌궐의 여인을 황후로 맞이하고도 총애하지 않자,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황후가 외삼촌에게 몰래 말하기를, “사방이 아직 안정치 못하고, 돌궐은 여전히 강하니, 원컨대 외삼촌께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려 백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돌궐의 도움이 있어야만 강남과 관동이 어지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제가 그 말을 깊이 새겨 받아들였다. 의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 딸아이의 才貌가 이와 같으니, 아무에게나 허락할 수 없다. 마땅히 현명한 사위를 구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러고는 이내 문에다 공작 두 마리를 그려 붙이고, 구혼해 오는 공자가 있어, 화살 두 개로 공작의 눈을 맞히면 허락하겠노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니 수십 인이 와서 쏘아도 능히 맞히는 자가 없었지만,

15) 「영터리 명궁 사위」, 『대계』 3-2, 786쪽.

16) 미리 방을 써 붙이지 않았더라도 활쏘기 능력을 확인한 후 사윗감으로 삼으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 작중병선 모티프가 부분적으로 변하여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속임수 활숨씨로 출세한 사람」(『대계』 7-13)이 이에 해당한다.

고조가 나중에 와서 화살 두 대를 쏘아 각각의 눈에 맞혔다. 의는 크게 기뻐하여 우리 황제에게 딸을 시집보냈다. 주무제가 봉어하자, 황후는 마치 그의 친부모가 상을 당한 것처럼 여겼다. 수문제가 선양하자,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황후가 몸을 침상에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남자가 아니라 외가의 재난을 구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노라.” 하니 두의와 장공주가 급히 입을 막으며 “너는 허튼 소리 마라, 우리 가문이 멸족될 수도 있다.” 하였다.<sup>17)</sup>

이 이야기에서 주체는 竇毅다. 두의는 北周 扶風 平陵 사람으로, 北魏 孝武帝 때 員外散騎侍郎으로 관직에 나갔다. 후에 북주에 들어가 神武郡公으로 오르고, 대장군에 임명되었고, 隋文帝 초에 定州總管에 올랐다.<sup>18)</sup> 주목할 점은 그가 당 고조 이연의 장인이자, 태종 이세민의 외조 부라는 사실이다. 두의가 이연을 사위로 맞은 사연에 바로 이 ‘작병중신’이 담겨있다. 두의는 총명한 딸이 아무에게나 시집가지 않도록 궁리를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문에 공작을 그려놓고 활을 쏘아 공작의 눈을 맞히는 자가 있으면 사위로 삼겠노라고 광고를 낸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와서 활을 쏘았지만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연이 와서 화살 두 대를 공작그림의 눈에 쏘은 것이다. 이연은 민담에서와 같이 신분상승이나 출세를 목적으로 두의의 시험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연 또한 北周(557~581)년의 대신이었으며 그의 이모가 바로 수 문제 양견의 아내인 독고황후로, 상당한 명문가 출신이다. 그러므로 두의와 이연의 고사

17) 『舊唐書』卷五十一, 列傳第一 后妃上. “高祖太穆皇后竇氏, 京兆始平人, 隋定州總管, 神武公毅之女也. 后母, 周武帝姊襄陽長公主. 后生而髮垂過頸, 三歲與身齊. 周武帝特愛重之, 養於宮中. 時武帝納突厥女爲后, 無寵, 后尚幼, 竊言於帝曰, 四邊未靜, 突厥尚強, 願舅抑情撫慰, 以蒼生爲念. 但須突厥之助, 則江南關東不能爲患矣. 武帝深納之. 毅聞之, 謂長公主曰, 此女才貌如此, 不可妄以許人, 當爲求賢夫. 乃於門屏畫二孔雀, 諸公子有求婚者, 輒與兩箭射之, 潛約中目者許之. 前後數十輩莫能中, 高祖後至, 兩發各中一目. 毅大悅, 遂歸於我帝. 及周武帝崩, 后追思如喪所生. 隋文帝受禪, 后聞而流涕, 自投於牀曰, 恨我不爲男, 以救舅氏之難. 毅與長公主遽掩口曰, 汝勿妄言, 滅吾族矣.”

18) 『周書』卷三十, 列傳 第二十二.

는 두 가문이 결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된 사건을 잘 포장한 스토리텔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활쏘기에 주목하여 본다면 활쏘기 실력이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둘은 매우 유사하다.

이 고사는 『용비어천가』에도 인용되어 전해온다.<sup>19)</sup> 활을 숭상하는 조선의 왕족과 양반 지배계층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는 것을 방증한다. 사윗감을 시험한 뒤 딸을 혼인시키는 이야기는 그 시험 종목이 활쏘기가 아니라도 널리 전승된다. 이를테면 문장력, 정력 등을 시험하여 사위가 되는 경우다. 이는 이야기가 널리 민간에까지 퍼질 수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 고사를 차용하여 이야기 전반부를 구성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 2) 大賊退治

명궁행세를 통해 부잣집의 사위가 된다는 내용은 오히려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비교할만하다. 이 이야기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널리 전승되는 보편적인 모티프다. 이 이야기의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한다.

옛날 한 사람의 閑良(武士)이 科擧를 보려고 서울로 向하였다. 中途에서 그는 어떤 큰 富者가 어떤 大賊에게 딸을 잃어버리고 悲嘆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딸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내 財産의 半과 딸을 주리라. 하는 榜을 八道에 붙인 것이었다. 閑良은 그 女子를 구하여 보리라고 決心하였다.<sup>20)</sup>

이렇게 하여 한량은 또 다른 한량과 결의하여 지하국에 들어가 지하

19) 『용비어천가』 제46장, “賢君을 내요리라 하늘히 駟馬 달애사 두 孔雀일 그리시 니이다(어진 임금을 내졌다고, 하늘이 부마의 마음을 달래시어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20) 1926년 3월 18일 대구부 본정 이상화군 담.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106쪽.

국의 대적을 퇴치하고 딸을 구해내어 그 집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에 비해 민담에서 방을 붙여놓은 사연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군데 웬놈의 집이 뒷곁에 배나무가 하나 있는데 잘 살어. 잘 사는데, 그 배나무 위에서 저녁이면 부영이가 와서,  
“부---영”

하면 그 집안 식구 하나가 죽어. 그래 그런 집에 식구가 많이 죽으니깐 이집에서 무섭게두 굴뿐아니라 아주 광고를 냈어요. 우리 뒷곁에 배나무에 앉는 부영이를 잡는 사람이면 내가 우리 딸을 사월 삼겠다. 양반으로 아주 잘 사는데, 그리고 우리집에서 잘 살리겠다. 이런 아주 광고를 했던 말야. 그러니 누가 광고해야 그 부영이를 잡을 수도 없고 광고한대야 응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한 집에 며슴 사는 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깐 ‘에라 빌어먹을 것 참 안되면 본전일테니깐 내가 해야겠다’ 구 아 이려고 장에 가설랑 활하고 전통하고 화살하고 이런 것 사다 죄 만들어서 한량처럼 해가주구선...<sup>21)</sup>

「지하국대적퇴치설화」에서는 대적에게 잡혀간 딸을 구해내는 것이 일종의 미션이지만, 여기서는 집 뒤에 앉아서 울며 집 식구를 죽이는 부영이를 죽이는 것이 사위로 삼는 조건이다. 물론 대적퇴치설화에서는 한량은 무예를 갖춘 인물이지만, 민담에서는 활을 전혀 쓸 줄 모르지만 명궁행세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설화 모두 활쏘기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담력과 용기 배짱이 사실상 관건이다. 다만 대적퇴치설화에 보이는 신성함, 영웅적 면모가 민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민담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둘의 유사성만을 두고 영향관계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활쏘기 민담에 보이는 이 부분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영향관계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상당히 유사하다. 앞서 살핀 대로 초기에 채록된 자료를 보면 거의 이와 유사한 작품위주라 아마도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하면서

21) 「부영이 잡은 한량」, 『구비대계』 1-2, 136쪽.

후대 다른 모티프가 추가되면서 명궁행세 이야기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실제로 여기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활 잘 쏘는 새만이 이야기」<sup>22)</sup>는 거의 「지하국대적대치설화」와 유사한 작품이다.

### 3) 引而不發

명궁행세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sup>23)</sup>

그러니까 마누라 그 장인, 장모, 처남 할 것 없이 우리 사우가 99마리 산새를 잡아서 올 딸 낮게 한 사람인데 얼마나 잘 하겠느냐 싶어서 구경을 한기라 인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인모의 자식이 활 꼬쟁이를 거꾸로 댔네, 거꾸로 활 꼬쟁이를 자기 복장을 댔기라. 썩면 자기가 죽는기라, 썩면. 놔 버리면, 활이 이리 대야 할 긴데(활 놓는 모습을 하며) 요리대 부리니까 놔 부리면 활 꼬쟁이를 거꾸로 대 났으니 통과해 버리면 죽는기라. 즈그 마누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활 꼬쟁이를 거꾸로 댔는디 통과해 버리면 서방이 죽겠어. 아따, 그래 갖구는 버티고 서 있어. 버티고 섰으니까 이모란 사람이 어찌 밭갈스럽던지 통과해 비릴라면 통과해 버리던지 죽든지 말든지, 버티고 맨날 섰어. 섰으니까 즈그 마누라가 짹 밀어버렸어. (조사자: 서방을요?) 그래, 서방을. 쏘라면 쏘고 말라면 말지 붙들고 섰다고, 근디 이 놈의 거꾸로 이리 댔 것이 옳게 돼 갖고 활 꼬쟁이가 이리 버티고 섰으니까 갖고는 하늘로 활 꼬쟁이가 올라갔어. 올라 갔는데 그러자 마자 대가 맞아갖고 기러기 한 쌍이 왔어. 기러기 기러기 한 쌍이 예, 눈썹에 탁 하나 맞았네. 날라가는 기러기 한 쌍을 잡을 때는 목표물 그거 벼락같이 맞추지, 안 맞추겠어? 이 사람이 뭘 수가 있능가 하면 자기 손가락을 자끈 분질렸어. 방정맞을, 안 밀었으면 기러기 한쌍을 다 잡은긴데 방정맞을 밀어갖구소 한 마리 밖에 못 잡았다, 이기라. 한 개 뺏어. 그래 갖고는 손가락을 똑 분질렸어. 그 뒤에 활

22) 『영남구전자료집』 7, 박이정, 2003, 190~209쪽.

23) 다만 「숙임수 활숨씨로 출세한 사람」(『대계』4-5)은 ‘인이불발’ 모티프가 중간에 오고 오히려 ‘대적퇴치’ 모티프가 맨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쏘라 그러면 아이저 손가락 부러져서 못하겠다. 했어.<sup>24)</sup>

한미한 집안 출신의 주인공은 속임수로 활을 잘 쏜다고 해서 사위가 되고, 또 소문이 나니 한량들은 물론 마을 사람이나 일가친척들 모두 사위의 활 쏘는 실력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위 자랑을 위해 장인이 일부러 대회자리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한량들이 직접 찾아와 활쏘기를 겨뤄보자고 한다. 그래서 활쏘기 대회가 열리는데, 사위는 위기 모면의 수단으로 무조건 활을 당길 뿐 놓지 않을 결심을 했던 것이다.

이 대목은 『맹자』에 전하는 ‘인이불발’이라는 대목을 연상케 한다.<sup>25)</sup> 맹자는 공손추가 어찌 높은 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그치지 않는지 묻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훌륭한 목수는 서툰 목수를 위해서 먹줄 쓰는 방법을 고치거나 없애지 아니하고, 쏘는 서툰 射手를 위해서 활 쏘는 방법을 고치거나 없애지 아니한다. 군자는 활을 당기고서 아직 놓지는 않았으나 그 기운이 흘러 넘칠 듯이 한다. 중도를 지키고 서 있기만 한다면 유능한 자는 따라오게 된다.”

물론 여기서의 ‘인이불발’은 민담의 그것과 의미와 맥락이 전혀 다르다. 이 구절의 의미는 가르치는 이가 스스로 중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가르치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활쏘기를 가르칠 때도 실제로 쏘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보여주기만 능력 있는 자는 그 법도와 이치를 깨우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민담은 맹자의 이 구절에서 교육적 의미를 벗

24) 「산새 99마리 잡아 사위된 옛장사」, 『영남』 3, 64~65쪽.

25) 『孟子』 盡心章句上. “公孫丑曰, 道則高矣, 美矣, 宜若登天然, 似不可及也. 何不使彼爲可, 幾及而日孳孳也?” 孟子曰, “大匠不爲拙工改廢繩墨, 羿不爲拙射變其彀率. 君子引而不發, 躍如也. 中道而立, 能者從之.”

겨내고, 민중적 발상으로 변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즉 설화에서는 널리 알려진 맹자의 언급을 주인공의 위기 모면을 위한 수단으로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와 비슷한 대목이 『禮記』 「雜記」 下에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활을 당기기만 하고 풀지 않는 것은, 문왕 무왕도 능히 할 수 없는 일이고, 풀기만 하고 당기지 않는 것은, 문왕 무왕도 하지 않는 일이니, 한번 당기고 한번 푸는 것이야말로 문왕 무왕의 도다.”<sup>26)</sup> 여기서는 활을 쏠 때는 활에 시위를 걸어 당기다가, 보관할 때는 활줄을 풀어 본래 모양으로 돌려놓아 둔다는 뜻으로 주나라 문왕 무왕은 백성들의 노동과 휴식,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베풀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을 경계했다는 의미다. 이 또한 민담과 의미맥락은 전혀 다르지만, 긴장과 이완이라는 모티프를 가져와 민중적 발상으로 변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3. 서사적 특징과 의미

#### 1) 명궁행세, 욕망 실현을 위한 트릭과 ‘신성한 활쏘기’의 붕괴

활쏘기는 신화적 인물과 전설적 영웅을 상징하는 행위다. 세계 신화와 전설에 무수히 등장하는 활쏘기 모티프는, 신성함과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특히 신화에서 활쏘기는 창세적 기능을 한다. 즉 천지가 아직 질서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활쏘기를 통해 질서를 잡는데, 대표적인 모티프가 ‘일월조정’이다. 아직 세상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 해와 달이 두 개씩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 천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른바 ‘일월조정’이다. 활쏘기를 통한 일월조정

26) 『禮記』 「雜記」 下, “張而不弛, 文武弗能也, 弛而不張, 文武弗爲. 一張一弛, 文武之道也.”

은 나아가 창세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세를 완성하는 구실까지 한다.<sup>27)</sup> 전설에서도 활쏘기 이야기는 대개 뛰어난 활쏘기 실력을 겸비한 역사적 인물의 활약상을 그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신화전설의 세계에서 신성하게 여긴 활쏘기는 점차 세속화되는데, 상하층 할 것 없이 활쏘기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보증하는 재능으로 간주된다. 善射는 부와 명예는 물론 왕위를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는 민간에서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에서는 명궁이 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활을 잘 쏘아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릭으로 얼마든지 명궁 흉내를 낼 수 있으며, 배짱이 있으면 천우신조로 그 명궁의 명예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민담에서는 이처럼 활을 잘 쏘는 명궁 대신 활을 잘 쏘지 못하는 자들이 명궁행세를 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이야기가 주종을 이룬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새잡이 총각의 명궁행세<sup>28)</sup>

1. 강원도 경선에 전서방은 아들을 늦게 두었다.
2. 비탈 밭을 일구어 열두 세 살 된 아들과 농사를 해서 사는데 부자가 밭을 파다가 팽이 끝에 돌이 튀면서 아들 정강이를 쳤다.
3. 아들이 고통을 호소하나 아버지는 편잔을 하였다.
4. 아들이 “이거 안 하구는 못 사나요.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하니, 아버지가 “못 하든 이놈의 새끼 돼지던지 어디루 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5. 아들이 내려갔다.
6. 아버지는 집에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려가면 혼내주려고 마음먹고 점심 때 집에 내려가니 아들이 없었다.
7. 아들은 싸리나무를 베어 활을 만들어 새를 더러 잡았는데, 모친이 점심 이고 나간 사이 자기가 만든 활을 챙겨 가지고 서울로 나갔다.

27) 이용범, 「한국 활쏘기 신화의 신화적 의미와 특징」, 『동북아 활쏘기 신화와 문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10, 17~57쪽 참조.

28) 『대계』 2-6, 361-379쪽.

8. 서울 장에 가서 장끼 한 마리를 사서 돌아다니다.
9. 대갓집 문 앞에 이르러 화살을 눈에 꽂아 집안으로 던지고 하인을 불렀다.
10. 하인에게 ‘내가 활을 좀 쓰는데 남산에 올라가서 꿩 눈을 맞추니 날 아가다 아마 이집에 떨어졌을 것인데, 꿩은 이 댁에서 잡숫고, 활촉이나 내렸으면 내가 또 어디 가서 꿩을 잡겠다.’ 하였다.
11. 하인이 주인보고 사정을 이야기 하니 주인이 전가 아들을 불러들인다.
12. 통성명을 하고 활숨씨를 묻고는, 전가 아들에 좋은 옷을 내어주어 갈아입히고, 집에 머물게 한다.
13. 주인은 3남 1녀를 두고 막내딸을 출가시킬 때가 되었는데, 안사람에게 전가 아들 이야기를 전하며, 활숨씨가 뛰어나고 인물이 좋으니, 사위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니 아내가 동의했다.
14. 전가를 사위로 삼기로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잔치를 벌이는데, 사돈택에는 기별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오지 않았다.
15. 주인은 빈객에게 사위가 활을 가지고 꿩을 잡았다고 자랑을 한다.
16. 첫날밤 신부는 전가에게 활을 어떻게 배웠는지 묻고 그렇게 잘 쏘면 지금 뒷간에 오동나무 꼭대기에 앉은 구구새가 울고 있는데 쏘아서 잡을 수 있겠는지 묻는다.
17. 전가는 잡을 수 있다고 하고 나갔다.
18. 한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옆에 닭이 있어 닭모가지를 잡아 손등에 얹고 오동나무를 향해 치켜들고 흔들거리니 구구새가 닭을 잡아먹으려고 내려와 닭을 잡아내려왔을 때 얼른 잡았다.
19. 닭은 얼른 화속에 넣고 활촉을 구구새 왼쪽 눈으로 넣어 오른쪽 눈으로 쏘 빠지게 해서 집어 내던지고 들어왔다.
20. 신부가 잡았는지 물으니 잡아서 뒤란에 내던졌다고 하고 이내 쿵쿵 잠들었다.
21. 신부는 궁금해 동틀 때까지 뜬눈으로 기다리다 나가서 보니 새가 화살에 꽂혀 죽어 있었다.
22. 신부가 아버지와 빈객(친척)들에게 새를 들고 가서 신랑이 잡았다고 한다.
23. 주인은 즐거워하며 조반 뒤에 아들삼형제를 불러 남북촌 활량들 수백 명인데, 이뿐 아니라 서울 장안에 활량을 다 모아서 활쏘기 잔치

를 하자고 한다.

24. 아들이 주병을 장만해 활량을 두루 초청하니 잔치에 온 활량들이 오늘 잔치는 무슨 의미로 베풀었는지 물으니 사위가 핑 잡은 사연을 이야기하며 사위자랑하려고 잔치를 베풀었노라 하였다.
25. 활량들은 만장일치로 축하를 하고 활쏘기 시합을 하였다.
26. 차례로 활을 쏘는데 전가 차례가 되어 활을 쏘러 나서게 되었다.
27. 전가는 활을 당긴 채 반시간을 그렇게 있자, 하도 답답한 삼형제들이 ‘그렇게 재간 있는 매부가 무얼 그렇게 오래 거래를 하느냐며 매부의 옆구리를 탁 쳤다.
28. 그러니 전가는 깜짝 놀라며 시위를 놓쳐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29. 한 십분 지나니 백학이 눈에 화살을 맞은 채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졌다.
30. 그러니 전가가 ‘내가 과녁을 안보고 하늘을 보니 청학백학이 날아가서 화살 하나에 두 놈 다 잡으려고 했는데, 난 오늘 처남 때문에 큰 실수를 했다’고 하였다.
31. 그러니 모두 개구리처럼 무릎을 꿇었고, 장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32. 잔치가 과한 뒤, 장인이 사위를 불러 사돈과 사부인을 모셔와야겠다고 하인을 보냈다.
33. 하인들이 가마를 가지고 가서 서울로 가자고 하니 영문도 모르고 서울로 왔다.
34. 주인이 사돈간에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던 차에 아들을 보니 아들이 인사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이집 사위가 되었다고 하였다.
35. 정선의 전가는 사돈이 자기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주자 강원도 살림을 옮겨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36.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선에서 밭이나 파면 이렇게 되었겠냐고 하니, 아버지는 잘 했다며 할 말 없다 하였다.
37. 그 아들이 경선 전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은 도량이 있어야 큰일을 한다.

이 이야기는 명궁행세 이야기의 특성을 두루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

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강원도 벽촌에서 밭을 일구는 사내로 자신의 처지에 염증을 느껴 자기가 대충 만든 활을 가지고 서울로 왔다. 여기서 몇 번의 눈속임을 통해 명궁으로 행세하고, 나아가 서울의 부잣집 사위가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 골자다. 선행 논의에서는 활쏘기가 상층의 무과시험의 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반면, 서민에게는 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았기에, 민담에서 의미 있게 인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sup>29)</sup> 그러나 이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대감이,

“아 너 그래 아 어디 사느냐?”하니까,

“강원도 경선 삽니다.”

“아 너 활은 언제 그렇게 배웠느냐?”

“아 활은 그저 지가 그 강원도 경선 산골에서 그 활이래야 변변치 않은 그저 싸리낭구 활에다 싸리나무 활촉을 가지구서 약간에 거기 날아 땡기는 새를 쏘아 버릇을 하니까 차차 처음엔 안되더니 아 새를 잡길 시작해서 이 서울 같은데 와서 하다못해 꿩이래두 잡아서 좀 생활을 헐라구 올라왔습니다.”<sup>30)</sup>

여기서 주인공은 아예 활을 가지고 생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했지만, 실상은 활쏘기를 이용해 팔자를 고치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활쏘기를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 선택했지만, 정작 꺾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싸리나무 활로 새를 잡았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야기에서는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활쏘기 능력이란 없고 오로지 활쏘기 능력을 위장한 트릭만을 궁리할 뿐이다. 실제로 이 강원도 총각이 서울에 사는 대감집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다 속임수를 쓴 덕분이다.

29) 정재민, 앞의 논문, 172~176쪽.

30) 「새잡이 총각의 명궁 행세」, 『대계』 2-6, 366~367쪽.

민담의 활쏘기에서 속임수를 쓴 것은 단순히 ‘희화화’<sup>31)</sup>라고 보기 힘들다. 민중들은 활쏘기가 신분과 인물됨을 상징하는 기예로 여기고 활쏘기 능력을 지닌다면 신분상승이나 부의 획득 등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유력한 재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민담에 반영되어 있는데 곧 활쏘기는 민중의 욕망실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sup>32)</sup> 문제는 활쏘기 능력을 갖출 조건이었다. 민중이 활쏘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우선 활을 쓰기 위해 구색을 갖추려면 이것저것 비용이 제법 드는데, 서민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다.<sup>33)</sup> 또한 활은 꾸준히 습사를 할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농사 등 생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민중은 활쏘기 기량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서 민중적 상상력이 동원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트릭이다. 활쏘기의 능력을 트릭으로 과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활쏘기 민담에서 트릭이 자주 활용되는 것은 바로 욕망과 현실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원래 트릭스터는 신화에서 사술을 사용하며 신관 인간 혹은 자연과 문화의 양의성을 지닌 인물을 띠며 전달자로서 행동하는 신화적 인물을 가리키나<sup>34)</sup> 이러한 문화 영웅적 성격이 퇴색하면서 단지 꾀를 부려 상대방을 속이는 인간<sup>35)</sup>이나 동물 가운데서도 많이 발

31) 정재민, 앞의 글, 173쪽.

32) 전통시대에 활쏘기 재능이 출세를 보장하는 사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무과라는 제도는 민간에서 활쏘기가 입신과 신분상승의 유력한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강명관, 『조선풍속사』, 푸른역사, 2010, 287~303쪽 참조.

33) 다음의 기록에서 대략 각궁의 값어치를 짐작할 수 있다.

“각궁이 붙이는 근은 소심줄이나 말심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소한 마리의 힘줄로 6~7개의 각궁만을 만들 수 있어 각궁의 값이 매우 비싸 군사들이 스스로 비용을 마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김일환, 정수미, 『궁시장』, 화산문화, 2002, 27쪽.)

“1981년도 각궁의 가격은 13만원이며 당시 쌀 한가마의 가격은 3만 5천원이었다.”(『활터조사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2007, 129쪽.)

34) 조희웅, 「트릭스터譚의 史的 小考」,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132~144쪽.

35) 김선달, 정수동, 방학중 등이 대표적인 트릭스터들이다.

견된다. 이것이 민담에 반영되어 널리 전승되는데 활쏘기 민담에서는 활쏘기라는 재능을 속이는 인물이 생생하게 형상화 되어있다.

가) …… 한 집에 머슴 사는 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깐 ‘에라 빌어먹을 것 참 안되면 본전일테니깐 내가 해야겠다’구 아 이려고 장에 가설랑 활하고 전통하고 화살하고 이런 것 사다 죄 만들어서 한량처럼 해가주구 선…<sup>36)</sup>

나) 강원도 경선이라는데 옛날에 전서방이 사는데, 아들을 하나 만드으루 두었는데 아주 늦게 두었단 말야. 그래 그 아들이 한 열두 서너살 먹었던지, 그 경선 산골이니 논두 하나 없구 저 아주 깎여지른 듯한 산천에 산밭을 일궈가지구 거기다가 조이 농살 해 갖이구서 그 어머니 하고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구 세식구가 구명도생을 해가는데…<sup>37)</sup>

다) 옛날 한 사람이, 모녀간 사는데, 그 남자는 참 유가여, 그래 살림이 넉넉잖응개… 어렵지. 그 그두 그두 참 품팔어먹구 사는데.<sup>38)</sup>

민담에서 주인공은 대개 지방의 한미한 집안 출신이거나, 농사꾼이다. 따라서 활을 다룬 적이 없으며, 따라서 활쏘기의 재능이 없다. 이들은 명궁 행세를 통해 상층계층에 편입하기를 갈망한다. 활쏘기는 신분상승의 도구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활을 잘 쏘는 것이 아니라, 활 잘 쏘는 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교묘히 활용하여 적절히 부와 능력을 거머쥐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그 방법론으로 트릭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화전밭 매다 명궁이 된 사람」은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명궁’이지만, 그럼에도 ‘명궁행세’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야기와 구별된다. 주인공은 화전을 매는 사람인데, 부부가 함께 밭일을 하다 잠시 쉬던 때 아래 길에 장원급제 한 사람의 행차가 지나갔다. 아내가 이를 보고 부러워하자 주인공은 그 자리에

36) 「부영이 잡은 한량」, 『대계』 1-2, 136쪽.

37) 「새 잡이 총각의 명궁 행세」, 『대계』 2-6, 361쪽.

38) 「속임수 활숨씨로 출세한 사람」, 『대계』 4-5, 558쪽.

서 그게 부러우면 자기도 과거에 급제하겠다고 하고는, 무과에 응시할 요량으로 집 앞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수수깡으로 화살을 만들어 집을 나섰다. 길을 가다 활을 맨 선비 둘을 만나 같이 올라가는데 주인공의 의복을 보고 업신여기던 차, 주인공이 뽕나무 활로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업신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활을 주면서 만약 급제하면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주인공은 앞서 집을 나서기 전 자신이 만든 활로 집에 마당에 기어 다니는 쥐를 맞춰 잡을 정도니, 활쏘기 실력이 실제로 출중하다. 과거시험장에서도 과거 세 곳에 모두 명중시켜 가장 우수한 실력으로 급제하니, 임금이 명장을 얻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그는 화전을 일구는 빈천한 인물이었지만, 활쏘기만큼은 뛰어난 명궁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기는 명궁행세 이야기라 할 수 없지만, 다음 대목에서 그는 활 대신 다른 방법, 즉 활은 잘 쓰지만 활쏘기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데 이 대목은 거의 명궁행세와 같다. 주인공이 과거를 급제하자마자 남산에 호랑이가 내려와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다 잡아먹는 변고가 생겨 임금은 주인공에게 일을 해결하라고 명한다.

뭘 천근 대호라구 그러나, 만근 대호라구 그래나? 호랭이 큰 걸 보든 그렇게 크다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깐, 도 대체 저걸 뭘 어떻게 해서 잡을 방책을 연골 해두 대체 안 되겠더래. 활루 쏜대두 거기 가지두 못하고, 거리가 머니까. 가까이 디리 대보든 웬만한 사람같으면 확 하구 디리 마시면 호랭이 뱃대기 속으로 들어갈 그 정도야, 아가릴 이렇게 냅다 벌렸는데. 그래구 보니깐 앞에 참 이렇게 쌍가쟁이 진 소나무가 밑에 도막을, 아릅드리야. 그래 쌍가쟁이 진, 그저 가쟁이 있는데 가서 요렇게 앉어가지구,

“에라, 되나 안 되나 어디 활루다 눈이나 한번 쇠보자.”

그러구 활을 이렇게 잡아 멍기니까. 예기 활을 쏘 새가 없이 와서 기냥 텃석 하구, 사람이 있으니까 기냥 와서 물은 거야. 그래 사람은 이쪽에서 요렇게 앉었구, 호랭일 바라보구 앉었구. 이쪽에서 언제 날아왔는

지, 기어왔는지 모르는데. 벌써 ‘왕’하구 와가지구 아 이놈이 뒤루 나가 떨어졌네. 쌍가쟁이에 앉았다 저기 저 호랭이가 왕하구 까무러쳐 가지구 뒤루 나가떨어졌는데.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 호랭이가 요렇게 쌍가쟁이에 와 걸린거야. 모가지가 이렇게 했다 사람은 떨어지니깐 그걸 뛰어 넘을 수는 없구. 몸뎡이가 크니깐 대가리가 이렇게 거기가 끼어가지구 몸뎡이가 쳐졌는데. 이 이놈이 올라갈래두 모가지가 꺾어서 그래두 모가지가 섰을 수두 없구. 거기서 지랄을 하다가 결국 쉽, 사람 목 매달아 죽는 거 모양으로, 쉽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놈이 까무라졌다 일어나가지구선 활촉을, 인제 양쪽 눈에다 끼구 말이야 짹짹 찢렸지, 활촉을 입에 하나 끼구. 기냥 똥구녕에다 짹 하구 하나 끼구. 귀에다 찢을까 하다 ‘에이 그까짓 거 죽은 노무 거 더 찢러야 활촉만 더럽히지 그랴 것 없다.’

(…중략…) 게 이 노무 걸 해가지구 스무 명이 그걸 세면서 인제 목도에다, 목도에 끈을 매가지구 끌면서 목도를 해가지구 간신이 와서 임금 앞에다 갔다 호랭이를 털썩 놓는데. 그래서부터 화살을 다 뒤 양쪽 눈에 끼워, 아가리에 끼워, 똥구녕에 끼여 있는 노무 걸. 뭘.

“아, 정말 명수다, 명수야. 이젠 경 때문에 이 성 중에 백성들, 성 위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게 생겼다.”<sup>39)</sup>

호랑이를 잡으러 나간 주인공은 나무 가지에 걸터앉아 활을 잡고 호랑이를 쏘려하는데, 호랑이가 주인공에게 덤벼들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 죽어버렸다. 그러니 주인공이 사체에 화살을 이리저리 꽂아 넣어 마치 자신이 쏘아 잡은 것처럼 꾸며, 호랑이를 임금에게 바쳤다. 이 일로 그는 더욱 명궁으로 알려지는데 그럴수록 트릭은 더 늘어난다. 주인공은 또 부영이도 다른 작품에서와 같이 한밤중에 나무위에서 손으로 잡아 죽인 후 화살을 눈에 꽂아 활을 쏘아 잡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주인공이 명궁임에도 ‘트릭’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인공은 명궁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치적 또한 활쏘기 실력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임금과 백성이 모두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이것을

39) 「화전발 매다 명궁이 된 사람」, 『이중부』, 52~53쪽.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가 자신의 활쏘기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의도하는 비는 미천한 사람도 활을 잘 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활이 만능의 무기는 아님을 보여주는 데 있다. 활을 아무리 잘 쏘아도 그 쓰임새는 한계가 있으며,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곧 민담에서는 활쏘기의 신성함이 전혀 강조되지 못한다. 세속에서는 활쏘기가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정작 그러한 능력이 없이도 지혜와 담력으로 얼마든지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담에서는 이렇게 활쏘기의 신성함이 허물어지고 있다.

## 2) 便射, 활쏘기 놀이의 서사화

편사는 특정한 무리들이 편을 지어 펼치는 활쏘기 시합을 가리킨다. 여기서 특정한 무리는 대개 한량이라고 칭하는 부류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대개 마을이나 射亭 별로 한 편씩 편성하여 시수를 겨룬다. 마을 별로 진행되는 편사는 골편사, 사정별로 벌이는 편사는 터편사 등으로 이름을 부른다. 편사는 활을 다루는 무인들이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시작한 것에서 유래 되었다. 고려와 조선은 무인 선발이나 훈련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여기서 훈련을 실시하면서 편사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그러던 것이 임란 후에 선조가 五雲亭을 지어 이것을 개방하여 백성들이 활쏘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 것이 민간에서 편사가 유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40)</sup> 더구나 임란이후 무과를 대거 확대하여 실시하면서 민간 활터가 확산되자, 이와 때맞춰 편사가 하나의 풍속이 되었다. 『동국세시기』의 내용은 조선후기 민간사정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편사인 활쏘기 놀이가 경향각지에서 널리 성행했음을 보여준다.<sup>41)</sup> 비록 나라 잃은 시

40) 편사에 관해서는 다음 책이 소장하다. 이중화 지음, 이중범 옮김, 『조선의 궁술』, 국립민속박물관, 2008, 116~141쪽.

대에 들어 활쏘기 풍속이 위축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명맥을 이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sup>42)</sup>

활쏘기 민담은 이러한 편사의 풍속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사의 흥미와 유기적 전개를 위해 이러한 풍속을 서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 (전략) 그대 하두 사우가 활을 잘 쏘서 오늘은 그 사우의 활 잘 쏘는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잔칠 베풀었노라.”

“아 그러냐.”구,

아 모두 그 만장일체루 다들 참 축하를 해 주구 아 그 그렇게 참 그 래는데, 그대 한 주판, 주 주병을 가지구 한 주판 잘들 제끼한 뒤에,

“야 인저는 활 활쏘는 내기를 하는데 서울 이 남·북촌 활랑들 다 모 이구 우리 사우 여기 나시구 이래가지구서 누가 활을 잘 쏘나 한번 시험을 해 보라.”

이제 이렇게 됐단 말야.

(중략) 아 활랑들이 전부 댘벼서 아 쏘는데 아 그 과녁을 바로 맞추는 사람두 있구 빗맞추는 사람두 있구 못 맞추는 사람두... 거 활랑들이 다 쏘았지.<sup>43)</sup>

나) 그러니깐 이제 참 부영이를 잡았으니 이제 안심이 된다고 그러고 선 그대 할 수 없이 이놈을 이제 사위를 삼았네.

아 사위를 삼으니깐 그 근방의 활랑들이,

“이렇게 유명한 이가 있으니 우리 활 좀 쏘자”

41) “서울과 지방 무사들이나 동리사람들이 모여 과녁을 세우고 편을 나누어 활쏘기대회를 열어 승부를 겨룬다. 그런 다음 술을 마시며 즐기는데 가을철에도 똑같이 한다(京外武士及里民張侯分耦爲射會以賭勝負飲酒爲樂秋節亦然).” “전라도 남원지방 풍속에 고을 사람들이 봄철을 맞아 부근 지역인 진안의 용담이나 울림(광한루 남쪽)에 모여 술을 마시며 활쏘기대회를 하는 것을 예로 삼았다(南原俗州人當春會于龍潭栗林飲酒射候以爲禮).” 『동국세시기』 3월 월내, 『조선대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3, 220쪽.

42) 이건호, 「근대 신문에 나타난 활쏘기의 흐름」, 『국궁논문집』 제7집, 온갖지공사회, 2009, 31~51쪽.

43) 「새 잡이 총각의 명궁 행세」, 『대계』 2-6, 373~374쪽.

고 아 이러곤 땀벼든단 말야.

그런 이 장인은 또 사우가 활도 잘 쏘고 하니깐 자랑 좀 삼을가 하구서, 그 집이 뒤결이 활 한바탕은 되는데 거기 다 과녁을 세워 놓고 연회를 차리고 활랑들하고 자기 사우하고…… 그래 다른 사람이 쏘는데 무신 오발사중(五發四中)하는 사람, 삼중하는 사람, 오중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이 녀석더러 쏘라네 그래 이놈의 자식이 활을 한번 쏘봤나 이걸 어떡하, 그래 이놈이 활을 가지구설랑 잡아 댕기구 이러구 있지.<sup>44)</sup>

다) 어느 마을에 건달 비슷하게 그런 놈이 하나 있었는데 샘은 많다 그거여. 남이 활을 쏘면 나도 활을 쏘구잡고 축구허면 축구허고잡고 샘이 많다 그거여 시샘이 많은다-아, 이때 서울서 궁술대회를 연다이렇게 방을 딱 붙여놨다 그거여. 그런게 마을에서 기냥 모도 이 한량들이 궁술대회 간다고 모도 연습하고 해왔거던. 아, 그래서 활 쏘는 것만 봤지 생전에 활 안 잡아봤어. 그런 놈이 저도 궁술대회 간다고 인제 한다 그거여.<sup>45)</sup>

인용문은 편사라는 놀이로 발전한 명궁행세 민담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 남북촌 한량들이 모여 편사를 했다는 대목은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가로지르는 길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살면 북촌편이 되고, 남쪽에 살면 남촌편이 되어 벌이는 이른바 ‘남북촌편사’<sup>46)</sup>를 가리킨다. 아마도 이것은 편사 가운데서도 널리 알려진 것이리라.

나)에서는 편사의 규칙과 절차에 대해서 완전하고 자세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이거나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대개 편사는 양편의 선수를 15명씩 선발하여 활 3순을 쏘아 시수를 계산하여 승부를 가리는데, 여기서 1순은 한번 사대에 서서 활을 내는 것을 가리키는데 한 순에 보통 5발을 쏜다. 이때 5발을 다 과녁에 맞히는 것을 현재 활터에서는 ‘沒技’라 칭한다. 즉 여기서 ‘5발4중, 5발5중’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활쏘기 규

44) 「부영이 잡은 한량」, 『대계』1-2, 138쪽.

45) 「우연한 명궁」, 『호남구전』 3, 46~47쪽.

46) 이중화, 앞의 책, 122쪽.

칙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설화에 반영된 것이다.

다)는 놀이로서의 편사를 민담에 수용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다른 자료와 달리 아예 편사를 이야기의 기본 축으로 삼은 점에서 특별하다. 앞에 인용한 두 자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자료는 속임수로 부잣집 사위가 되었다가 장인의 권유로 편사에 참가하는 경우인데 비하여, 이 자료는 활 한번 잡아보지 못한 주인공이 처음부터 편사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대목부터 이야기가 시작한다. 곧 이 자료는 작품의 시작과 끝이 편사를 기본 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에서도 활쏘기가 서사에 수용된 경우가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sup>47)</sup> 더구나 이야기에서 그다지 중요한 기능을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구비 전승되는 민담에 놀이화된 활쏘기인 편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활쏘기는 놀이다. 카이와의 분류에 의하면 아곤에 해당한다.<sup>48)</sup> 아곤은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능력을 겨루는 경쟁을 통해 승부를 내는 경기다. 이때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대개 신화와 전설에서 활쏘기는 천부적인 소질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획득하는 실력으로 정치적 권력과 부를 이루는 주요한 모티프다. 중요한 것은 활쏘기가 그 바탕이 되는 체제나 제도, 관념을 깨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활쏘기는 개인의 수양이나 출세의 도구에 그칠 뿐, 전복적 도구는 아니다.

그런데 민담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구비 전승의 민담에서는 활쏘기의 규칙성을 희극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활을 쏘는 자는 능력이 없으나, 트릭을 써서 능력이 출중한 것처럼 보인다. 활쏘기 대

47) 선행연구에 의하면 「운영전」, 「이춘풍전」, 「지봉전」 이 세 작품에 활쏘기가 나타난다. 이민희,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적 성격과 놀이 문화」, 『열상고전연구』 30집, 2009, 268~271쪽.

48) 로제카이와가 놀이를 경쟁(아곤), 우연(알레아) 모방(미미크리), 현기증(일링크스)로 분류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로제 카이와 지음, 이상률 옮김,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2003, 111~190쪽.

회에 임해서도 그들은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결정인 순간에 우연히 그들의 실력을 증명해줄만한 일이 일어나 위기를 모면하고 나아가 부귀와 명예를 누린다. 곧 아곤에 바탕을 둔 활쏘기 이야기를 미미크리(명궁행세)와 알레아(기러기 눈을 맞춤)를 적절히 사용하여 서사적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 4. 마무리

활쏘기를 주요 모티프로 삼은 구비서사는 매우 풍부하며, 이에 관한 연구도 풍부하다. 다만 신화 전설에 나타난 활쏘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민담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다는 점에서 연구 상의 편향이 노정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민담에 전승되는 활쏘기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신화전설과 차이가 있다. 우선 민담의 주인공은 영웅이 없다. 다만 한미한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들 주인공은 활을 전혀 쏘지 못하지만 명궁행세를 하여 처를 얻거나 부를 누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점이 신화전설과 비교하여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활쏘기 민담 가운데 명궁행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티프와 그 서사적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이야기를 이루는 주요 모티프를 살펴보았다. 우선 활 잘 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며 널리 공모한다는 모티프는 구당서에 전해오는 ‘雀屏中選’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활 잘 쏘는 사람은 주로 집 뒤의 새를 잡아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는 ‘大賊退治’설화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활을 당겨놓고 쏘지 않는 모티프는 맹자에 보이는 ‘引而不發’의 희화적 서사화로 짐작된다. 이 모티프는 모두 신화전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민담에서만 보이는 모티프다.

다음으로 서사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활쏘기 이야기는 제대로 된 활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지방의 빈천한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명궁행세를 통해 결핍을 해소하고 욕망을 실현하는 이야기로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트릭을 구사하며 명궁의 지위를 누리고, 위기에 이르렀을 때는 기지를 발휘하며 최종적으로 욕망을 실현한다. 이 과정에서 활쏘기의 신성함은 붕괴된다. 또한 명궁행세 이야기에서는 편사라는 전통적 활쏘기 놀이를 서사적 진개를 위해 이야기로 끌어들었다. 편사는 편을 나누어 활쏘기 실력을 겨루는 놀이로 조선후기에 성행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져오는 놀이다. 이 놀이를 서사에 적극 반영하여 흥미를 배가했다. 이 두 가지는 민담에서의 활쏘기 이야기가 신화 전설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핀 바와 같이 신화, 전설과 달리 민담 속의 활쏘기 이야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여기서 진행한 초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고찰하면서 설화에 나타난 활쏘기 이야기를 더욱 포괄적으로 균형감 있게 해명해야할 과제가 제기된다.

##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정신문화연구원, 1988.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I, 평민사, 1989, 104~110쪽.
- 이기형, 『이야기꾼 이종부의 이야기 세계』, 보고사, 2007, 43~62쪽.
- 조희웅, 노영근, 박인희, 『영남 구전자료집』 3(경남 함양군), 박이정, 2003, 63~65쪽.
- 조희웅, 노영근, 박인희, 『영남 구전자료집』 8(경남 의령군), 박이정, 2003, 189~190쪽.
- 조희웅, 조홍욱, 박인희, 『호남 구전자료집』 3(전남 고흥군), 박이정, 2010, 46~47쪽.
- 신동훈 외, 『도시전승설화자료집성』 10(울산 동헌공원), 민속원, 2009, 237~238쪽.
- 『孟子』  
『禮記』  
『周書』  
『舊唐書』  
『용비어천가』
-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106쪽.
- 조희웅, 「트릭스터譚의 史的 小考」,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132~144쪽.
- 정재민,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국궁-설화에 나타난 활쏘기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학예지』 제7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0, 159~181쪽.
- 이중화 지음, 이중범 옮김, 『조선의 궁술』, 국립민속박물관, 2008, 116~141쪽.

- 김일환, 정수미, 『궁시장』, 화산문화, 2002, 27쪽.
- 『동국세시기』 3월 월내, 『조선대세시기』 III. 국립민속박물관, 2003, 220쪽.
- 『활터조사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2007, 129쪽.
- 이민희,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적 성격과 놀이 문화」, 『열상고전연구』 3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268~271쪽.
- 이건호, 「근대 신문에 나타난 활쏘기의 흐름」, 『국궁논문집』 제7집, 온갖지궁사회, 2009, 31~51쪽.
- 강명관, 『조선풍속사』 1, 푸른역사, 2010, 286~303쪽.
- 이용범, 「한국 활쏘기 신화의 신화적 의미와 특징」, 『동북아 활쏘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10, 17~57쪽.
- 로제 카이와 지음, 이상률 옮김,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2003, 111~190쪽.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Abstract>

## A Study on the story about archery in folklore

- With a focus on pretended to be an expert archer -

Jung, Hun-Sik

This paper examine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motifs of the archery stories handed down to Korean folk tales.

there are three main motifs that make up the story. At first, the motif, which says to give a daughter to a man who shoots well and widely publicizes it, is presum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It is presumed to have originated from “select by shooting the birds on the screen(雀屏中選)” passed on to the Old Tang Dynasty. The man who shoots well is usually given a mission to catch the bird behind the house, which seems to be related to the story of Defeat a great thief (大賊退治). Finally, the motif that the main character pulls the bow to pull out of the crisis and does not shoot is estimated that shown in Mencius “draw the bow without shooting(引而不發)” transforms into a popular narrative.

And The story of archery that is handed down to folk tales differs from myths and legends in two ways. First of all, the hero of the folk talk does not have a hero. However, a humble hero appears. These characters can not shoot the bow at all, but they take the place of the wealthy family by pretending to be a mongrel, and this feature is remarkable in comparison with the legend and myth. Also, in the

story of archery, Korean traditional archery play called “便射”(Team archery competition) was brought into folklore and made into story.

Key Words : Folktale, Archery, select by shooting the birds on the screen(雀屏中選), Defeat a great thief(大賊退治), draw the bow without shooting(引而不發), Pretended to be an expert archer, Trick, Team archery competition(便射)

■ 논문접수 : 2016년 11월 13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